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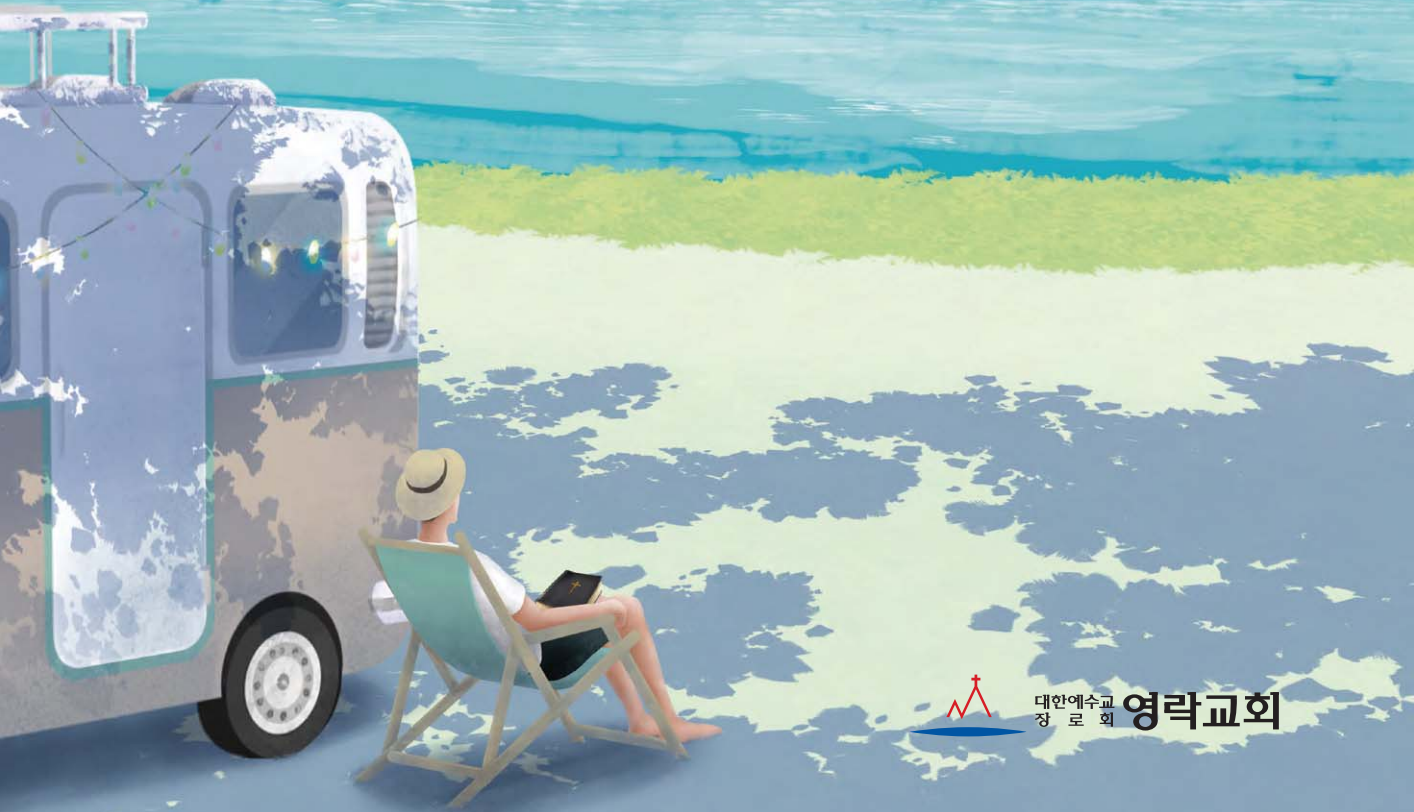
08

2023

통권 594호

# 만남

특집 건강한 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 CONTENTS

## 이달의 말씀

02 가장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김운성

## 특별기고

04 8·15 광복절을 생각하며 김성이

## 특집 건강한 심

06 경청과 청중... 말씀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김겸섭

09 미친 더위... 온열질환 주의! 최현희

# 06



# 22

12 몸은 말씀을 담는 그릇 정주호

14 여름음료 이런 단맛에 당한다 권오란

##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

16 영락 80주년 비전

## 다음세대

20 청년부 하기선교 나광호

22 언더우드처럼... 섬기겠습니다 전홍진

24 벽 오르며... 신앙 문제도 풀니다 안태진

## 땅끝까지 이르러

26 농촌교회에 콤바인 지원 장은희

28 직장인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송경훈

### 교회표어

말씀따라 행진하라  
(민수기 9:23)

###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건강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 5대 본질



# 만남

2023년 8월호 통권 594호



## 38

31 전도현장서 체험한 성령의 임재 이지현

32 전도할수록 더 큰 은혜 경험 안경선

### 영락의 울타리

34 은혜로 드리는 ‘오늘 예배’ 한영훈

36 모이는데 진심 종로·성북의 자랑 이재향

38 “키오스크 이젠 자신 있어” 김교심

### 야곱의 우물가

40 엄마 돼서야 예수님 사랑에 눈떠 황지원

42 원망하던 내 기도 감사로 채워졌어요 이영자

44 부산 적신 ‘천상의 화음’ 김경호

### 문화광장

46 거짓의 사람들 강승훈

47 ‘이 시대 리더십’ 북적북적 공모

50 성경과 수학의 고리, 재밌게 풀어줘 한철형

### 교회소식

52 특별금요산상기도회 외

56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정재원

### 8월 목회력

- 06 주일 • 찬양예배 성찬
- 13 주일 • 광복주일
- 13~18 •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수련
- 15~19 • 청년부 하기선교봉사
- 19 토 • 상담부 공개강좌(하반기)
- 20 주일 • 심방준비회
- 27 주일 • 사회봉사주일

### 표지설명

여름의 더운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8월은 “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풍경을 느끼는 시간들을 만들어보세요.



## 가장 두려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김 운 성 위임목사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좇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네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와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열왕기하 9:25~26)

북 왕국의 요람 왕은 아버지 아합을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약했고, 아람의 침략에 시달렸습니다. 그나마 이스라엘이 버틴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엘리사 선지자의 역할이 컸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람이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의 길을 막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람 왕은 내부에 첩자가 있어서 비밀 작전이 이스라엘에 알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을 통해 아람의 모든 전략을 알았고, 요람 왕에게 알려 아람 군대를 막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엘리사를

제거할 계획을 세운 아람 왕은 그를 잡기 위해 도단성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는 도단성을 에워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인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드셨고, 엘리사는 그들을 사마리아성 안으로 이끌어 들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사마리아성 복판에서 포로가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요람 왕에게 말하여 그들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에도 아람의 벤하닷 왕은 다시 침략하여 사마리아성을 포위했고, 성안에 음식이 떨어져 어머니들이 아이를 잡아먹는 비극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람 군인들의 꺾기에 많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두려움에 빠지게 하셨고,

## 누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긍휼 구해야 할 때

아람 군대는 모든 무기와 식량을 버린 채 도망했습니다. 성 밖의 나병 환자들에 의해 이 소식이 성안에 알려져 굶주린 백성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람 왕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람 왕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요람을 죽인 사람은 적군이 아닌, 그의 장수 중 한 명인 예후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세벨도 죽는 등 집안이 몰살당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때는 하나님께서도, 엘리사도 요람을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 차례 요람 왕을 건지시던 하나님, 그리고 늘 돕던 엘리사 선지자가 왜 돕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요람과 그 집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는 예후가 왕이 되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 이하입니다.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리고 열왕기하 9장 1절 이하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제자 중 하나를 보내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는 요람 왕을 도운 게 아니라, 그를 죽일 예후 장군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람 군대로부터 여러 번 구원을 받았지만, 중국에는 그를 도우시던 하나님께 멸망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질 자가 없었습니다. 위협하는 적이 사람일 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적이 되면 누구도 건질 수 없습니다. 요람과 그의 가문이 멸망한 것은 그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 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의로운 나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등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8월의 광복절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일제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생각의 방향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대상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해 진노의 채찍을 드신 것은 아닐까요? 외부의 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면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길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누란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살길입니다. 8월을 맞이하며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만남**

북한선교부원들과 함께 중국 만주 지역의 중국인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저녁 늦게 중국인 교회에 들어갔을 때, 허름한 교회 한구석에 앉아있던 중국 교인 십여 명이 기뻐하며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환한 미소를 띠며 “예수 아이 니”라고 외치며 두 팔 벌려 따뜻한 인사를 건네주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천사와 같았다. 우리도 기뻐하며 그들과 포옹하고 애정 어린 인사를 나눴다.

처음에는 그들이 반갑게 맞아 주어 감격과 감동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다. 만일 통일이 되어 우리가 북쪽 사람들을 만나 서로 기쁘게 인사를 나눌 때, 그들이 “고맙다” “수고했다” “통일을 위해서 많이 애썼나요?”라고 말하며 다가온다면, “그래요” “그동안 참 노력했어요.”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자문했다.

통일이 언제쯤 이루어질까 걱정만 하지는 않았는지? 국내외 상황을 볼 때 5년 내외가 아니겠는가? 하며 아는 체를 하거나, 통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도둑같이 올 거라고 말하며 거만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제는 통일이 언제 올까? 묻기보다 통일이 이미 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 묻고 행동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우리 영락교회는 매주일 <자유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탈북 자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이다. ‘자유인 예배’를 알고 있는가?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가? 그들과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가? 한 명이라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가?

1945년 8월 15일, 78년 전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누렸다. 하지만 그 후로 6·25 전쟁과 민족분단의 아픔을 겪었다. 준비 없이 맞은 해방이 분단의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아무런 노력 없이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민족적 아픔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는가? 준비된 통일을 위해 우리는 지금 작은 일부터 복음을 실천해야 한다.



김성이 은퇴장로  
성동·광진교구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 25) **만남**

# 건강한 쉼

여름은 참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풍요로움에 감사하며,  
말씀, 기도, 묵상을 통해 “쉼”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건강”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운 날씨에無理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균형있는 식사와 적당한 운동 빠뜨리지 마세요.



쉼,





## 경청과 청중... 말씀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살아 있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나를 쫓아다니신다.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붙드신다.

- 마르틴 루터

###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자신은 작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누가복음 9:23) 제자

도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인하고"는 헬라어 '아파르네사스도'로서, '자기 내면에 살아있는 옛사람에게 속한 욕망을 거부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에 거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은 작아지는 반면, 영적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골로새서 3:16) 내면에 존재하는 사람, 곧 말씀에 풍부한 사람은 독선, 오만, 위선으로 비대해진 육신적 자아를 버리고, 섬김, 배려, 나눔 같은 '성령의 품성'으로 내면을 채우는 '영적 전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악한 문화'를 탄핵하는 영적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히브리서 4:12).



김겸섭 목사  
한마음교회

### '쉼'의 탄생 - '쉼'은 '휴식'과 다르다

예수 그리스도는 613개나 되는 율법의 짐과 일상생활의 고단함으로 신음하는 유대인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라는 초청장을 보내셨습니  
다. ‘쉽’이란 단어의 헬라어 ‘아나파우소’는 ‘계속해서  
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쉽’  
은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  
니다. 그리고 이 ‘쉽’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  
라”(마태복음 11:29)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멍에  
를 메다’는 ‘제자가 되다’를 의미하며, “내게 배우라”  
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를 의미합  
니다.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 이후 태동한 초기 교회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  
아”(사도행전 2:42)라는 ‘말씀의 양육과 나눔’이었습  
니다. 이는 진정한 ‘쉽’은 말씀과 깊은 만남으로만 가  
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 ‘쉽’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뛰어난 설교나 아름다운  
예술 작품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피  
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의 등장인물 데  
이지처럼 화려한 옷을 보고 감동하는 ‘세속적인 시대’  
입니다. ‘세속화’란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해석에 동  
의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세속화의 시대’에 사는 것  
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  
라”(갈라디아서 5:16)라는 가르침을 실천의 원칙으  
로 삼습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  
씀을 마음에 담아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한다’를 의미합  
니다. 자신의 행보를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면, 어  
떤 죄악도 그리스도인을 흔들어 놓지 못합니다(시편  
119:133). 아브라함이 영적 승리를 이룬 것은 “이에  
아브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창세기 12:4)에  
기반합니다. 사울 왕이 몰락한 것은 “왕이 여호와와  
의 말씀을 버렸으므로”(사무엘상 15:23)에서 결정되었

하나님 말씀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으면  
육적인 나는 작아지고 영적 자아는 장성  
불안·탐욕·의심 사라지고, 선한 싸움 승리  
하나님은 영원한 쉬를 선물로 주실 것

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  
씀이 깊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네 종류의 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불안에서의 쉬** 이 시대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불안’  
이란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안이 우리  
를 스스로 찾아오며, 우리가 추방하려 해도 계속해서  
우리 곁에 머무는 ‘집요한 감정’입니다. 이 불안은 ‘두  
려움’으로 바뀌어 우리의 일상을 어둠으로 물들입니  
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이사야 43:1)라고 위로  
하십니다. 성경에는 이런 위로의 말씀이 ‘366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그저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창조의 말  
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  
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창조의 말씀이 우리의 인  
격을 덮을 때 ‘새로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우리 삶의  
폭풍과 물결을 한순간에 가라앉히고(마가복음 4:39),  
슬픔을 춤으로 바꾸어 베풀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떠  
를 띄우시는(시편 30:11) 힘이 있습니다. 이 창조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삶에서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탐욕에서의 쉬** 작가 에밀 졸라는 그의 소설 「여인들  
의 행복백화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는 필요의 시대가 아닌 욕망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제 사람들은 백화점에 가서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욕

망 때문에 물건을 구매한다. 그 결과 사람들은 대성당보다 백화점에 있을 때 더 행복을 느낀다”. 이 시대는 이미 ‘황금’, ‘권력’, ‘욕망’이라는 ‘매력적이지만 위험한 우상들이 지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황금’은 거의 신의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교회 내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일탈’(사도행전 5:1~11)이 재현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으면 ‘내면의 탐욕’이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황금에서 ‘위의 것’(골로새서 3:1)으로 옮기도록 교정해줍니다. 곧 바울처럼 자신의 영광을 보잘것없는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가르침을 소망하는 삶으로 탈바꿈시킵니다(빌립보서 3:5~14).

**의심에서의 쉼** ‘의심’은 믿음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특징적 증상입니다. 이는 기도의 가장 큰 걸림돌이며(마가복음 11:23), 신앙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야고보서 1:6).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 들은 제자들이 보인 첫 번째 반응도 ‘의심’이었습니다(누가복음 24:11).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지배한 것도 ‘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의 두 제자는 같이 걸어가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한 뜨거운 열정은 두 제자의 의심을 모두 태워버렸고, 본래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24:32~34). 하나님의 말씀은 ‘의심’을 허물고 ‘확신’이라는 ‘쉼’을 제공합니다.

**전투에서의 쉼** 시인이자 전사(戰士)였던 다윗은 삶의 절반을 전쟁터에서 보냈습니다. 전쟁터는 ‘삶과 죽음이 함께 어우러진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다

윗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이다”(시편 4:8)라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의 신앙은 ‘너희 앞서 행하시며, 너희 대신 싸워주시며, 너희를 안아서 보호해 주신다’(신명기 1:29~31)라는 약속의 말씀에 기초했습니다. 세상의 악한 원리와 싸우는 그리스도인들도 “여호와야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시편 27:1)라는 말씀을 신뢰할 때, 이미 세상을 이긴 그리스도께서 ‘압도적 승리’를 주시고 ‘쉼’을 공급하실 것입니다(요한복음 16:23, 요한일서 5:4).

### 지금, 경청과 청종이 필요하다.

말과 말씀은 ‘소통의 통로’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까닭도 하나님과 떨어진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귀 기울이는 것’과 ‘따르는 것’이 요구됩니다. ‘귀 기울이는 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며, ‘따르는 것’은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의 주도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뒤,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나무 강대상 위의 두루마리를 펼 때 모두 일어서고, 두루마리 말씀을 강독할 때 모두 울었던 사건(느헤미야 8:5~9)은 ‘귀 기울이고 따르는 것’의 모범적 사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말씀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쉼’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만남**

## 미친 더위... 온열질환 주의!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와 장마가 동시에 찾아오는 여름에는 체력이 금방 소모되고, 쉽게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와 에어컨으로 차가운 실내의 온도 차이는 면역력 약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습도가 높아지면 질병에 노출될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면역력 향상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면 우리는 어떤 질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 폭염과 함께 찾아오는 ‘온열질환’

온열질환은 너무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입니다.

① **열사병** :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체온조절중추)가 외부의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기관의 손상과 기능 장애 등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 가장 위험한 온열질환으로 분류됩니다. 열사병 환자들은 의식을 잃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땀이 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하고 뜨거워집니다. 심한 두통, 오한, 빈맥, 빠른 호흡, 저혈압, 메스꺼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즉시 119에 연락하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체온을 낮추어야 합니다. 옷을 느슨하게 하고 몸에 시원한 물을 적셔 부채나 선풍기로 몸을 식힙니다. 얼음주머니가 있으면 목, 겨드랑이, 대퇴부 등에 붙여 체온을 낮추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음료를 먹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절대 금해 주십시오.



최현희 권사  
성동·광진교구  
의료선교부  
간호사

② 열탈진 : 더위로 땀을 많이 흘려 수분과 염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열탈진 환자들은 보통 과도할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리며, 피부가 축축하고 차갑습니다. 얼굴은 창백하며, 체온은 크게 상승하지 않지만, 극도의 피로감, 근육경련, 매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겨 휴식을 취하고 물을 충분히 섭취하게 해야 합니다. 시원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1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호전되지 않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땀을 많이 흘렸을 때에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당분이 많은 음료는 주의해야 합니다.

③ 열실신 : 몸이 너무 더워지면, 열을 외부로 발산하기 위해 신체 표면의 혈액량은 늘어나고 심부의 혈액량은 감소합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경우를 말합니다. 갑자기 일어서거나, 오래 서 있을 때 발생하며,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어지럼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환자를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평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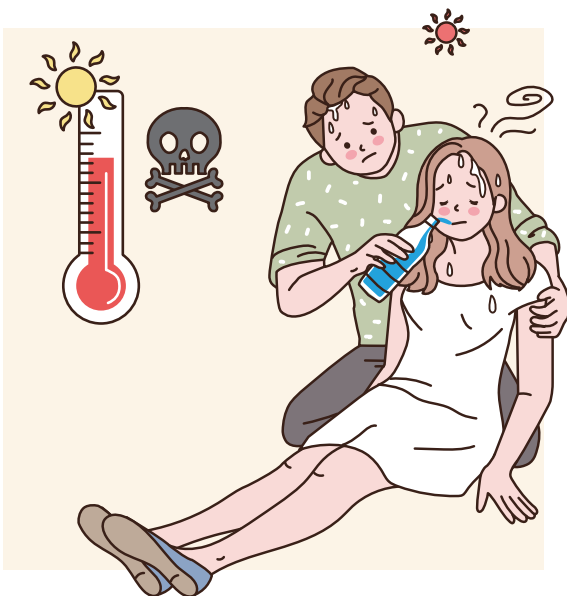
한 곳에 눕혀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올려야 합니다. 대화가 가능하다면 천천히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④ 열발진/땀띠 : 땀띠는 누구나 경험했을 것입니다. 땀구멍이 막혀서 땀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아래에 축적되면서 발진이나 물집이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목 주변, 겨드랑이, 이마, 팔꿈치, 가슴 상부, 사타구니, 팔이나 다리 안쪽 등 피부가 접히는 곳에 주로 발생합니다. 이런 때에는 환부를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 심하다면 차가운 물로 찜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온열질환을 피하려면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즉, 폭염이 가장 심한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피해야 합니다. 외출할 때에는 선크림을 바르고, 양산이나 모자를 쓰고, 서늘한 곳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면서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 물놀이 후 주의사항!!

① 외이도염 : 물놀 이로 귀에 물이 들어가면 외이도염을 조심해야 합니다. 외이도염은 귀 입구에서부터 고막까지 세균이 감염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더운 날씨에 습기가 많아지면 감염의 위험이 커집니다. 귀가 가렵거나, 귀를 당겼을 때 통증이 느껴지면 외이도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 안이 가렵거나 귀가 막힌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외이도염을 예방하려면, 물놀이 시 귀마개를 착용하고, 물놀이 후에는 드라이기로 귀를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귀에 물이 들어갔다면 면봉으로 귀를 청소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물이 빠져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증상이 악화하여 붓기와 진물이 심해지면 청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② **유행성 결막염** : 유행성 결막염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 질병은 감염력이 아주 높아서, 신체접촉이나 매개물, 수영장 물 등을 통해 쉽게 옮을 수 있습니다. 눈이 따끔하고, 충혈되며, 가려움증, 눈곱, 눈물이 많아지는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런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안과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결막염 예방에 가장 중요합니다. 외출 후 손발을 깨끗이 씻고, 물놀이 후에는 샤워하는 등 철저한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의치 않다면 인공눈물로 눈 주변을 씻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 여름철 음식 관련 질병

① **식중독** : 오염된 음식이나 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계속해서 토하고 설사를 하게 되고, 고열과 오한 그리고 두통을 동반합니다. 식중독을 피하려면 음식을 익혀 먹고 물도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

② **장염** : 장염은 바이러스나 세균 때문에 소장이나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복통, 설사, 구토, 식은땀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심한 경우, 탈수나 고열 상태로 실신할 수 있으니, 이런 증상이 의심되면 전문의를 찾아야 합니다. 더운 여름에는 회, 해산물 등 날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고, 상온에서 오래 두었던 음식도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요리하기 전에는 손과 도구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아이들에게 많이 걸리는 수족구병

아이들은 여름에 수족구병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 질환으로, 사람 간의 접촉이나 침방울로 쉽게 전염되는 질병이며, 손, 발, 엉덩이, 입안에 물집이 생기게 됩니다. 주로 5세 미만의 아이들이 걸리지만, 면역력이 약한 성인도 걸릴 수 있습



니다. 열이 나거나 손과 발에 물집이 생기고, 구토나, 설사 등의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수영장이나 물놀이를 하고 나서 걸릴 확률이 높으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집단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잘 걸리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 1주일 정도면 나아지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홀쩍홀쩍, 콜록콜록~ 냉방병

더운 여름에도 감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내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나면 자율신경계, 호르몬 분비, 스트레스 등에 대한 이상 반응으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기도 점막에 수분이 부족하고 저항성이 약해져서 기침, 콧물,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두통, 열, 한기, 근육통, 피로감, 장 기능 저하로 설사나 복통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은 냉방병에 취약합니다. 실내의 온도 차를 5~8℃ 이내로 유지하고, 실내에서는 얇은 카디건 등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여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만남**



## 몸은 말씀을 담는 그릇 '착한 습관'을 붙여야죠

무덥다 못해 뜨거운 한여름입니다. 요즘 주변을 보면 활기차게 시작해야 할 아침부터 힘겹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간의 누적된 피로가 하루의 수면으로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즐기는 분 중에는 체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커피를 여러 잔 마셔야 간신히 하루를 버틴다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결심한 것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습관을 바꾸려면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크리스천 중에는 전도와 선교는 영혼으로 하는 것이고 "내 몸은 내가 알아서 관리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바쁜 생활을 이유로 과식, 폭식, 야식, 부족한 수면 등으로 인한 피로를 단순한 일상 습관으로 간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니며, 100년에도 미치지 않는 세월 동안이지만, 이 세상에서 잘 사용하라고 잠시 하나님이 빌려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몸이 단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유한하지만, 우리 영혼은 무한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제약된 몸에 영혼을 감금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건강한 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는 영혼만의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몸이 필요합니다.



정주호  
스타트레인 대표  
기독교청년 코스타 강사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19~20)

말씀에 따르면, 우리 몸을 잘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삶의 축복이며, 운동(신체활동)으로 인한 몸의 통증은 체력이 향상되는 축복입니  
다.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 몸은 모두 고난을 통과해야 성숙과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하실 때 우리의 영·혼·육 중 어떤 것도 편하게 놓아두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러므로, 이제부터는 '이전의 습관을 깨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이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히 설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상 분  
주한 분들을 위해 생활 속에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운동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나의 몸 성전 회복을 위한 5가지 운동

스쿼트, 팔굽혀펴기, 런지, 플랭크, 윗몸일으키기를 각각 1분씩 하되, 운동 사이마다 20초간 쉽니다.  
전체 5가지 운동을 연달아 한 후에는 30초간 휴식을 취하고, 이런 방식으로 총 3세트의 운동을 합니다.  
매일 운동할 때마다 각 운동의 1분간 최대 횟수를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운동이 느슨해지지 않게 하며, 매번 더 높은 수준으로 체력을 끌어올려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섯 가지 운동으로 인해 전체적인 체력을 향상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잠자기 전에  
이런 운동을 해보는 것도 하루를 건강하게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육체'로 살아갑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할 때, 우리 육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강건히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몸의 성전'을 이용해 세상  
을 이기는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남**



한여름에는 더위를 이기기 위해 상쾌한 음료를 자주 찾게 됩니다. 하지만 음료는 단맛을 내기 위해 당류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고가의 100% 과즙음료도 마찬가지로, 농축된 천연과즙을 다시 물로 희석하는 과정에서 당류를 첨가하지 않으면 달콤한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탕, 액상과당, 시럽, 꿀, 물엿... 이러한 당류는 높은 열량만 제공할 뿐 다른 영양가는 제공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을 위해서 첨가당의 섭취량을 하루에 50g(각설탕 16개 분량) 이내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 우유와 같은 자연식품에도 단맛을 내는 당류가 있습니다. 이런 당류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단백질 등 중요한 영양소를 함께 제공하는 특

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에 함유된 당류를 “천연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당류 섭취를 낮춘다고 해서 과일이나 우유를 먹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첨가당 섭취를 적정량으로 조절하면서, 자연식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상쾌한 음료를 즐기면서도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 있어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품의 혈당지수(Glycemic Index, GI)는 각 식품을 섭취하였을 때 혈당이 얼마나 빠르게 상승하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적인 값인데, 혈당관리에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혈당지수가 낮은 식품일수록 혈당 상승이 완만하여 건강에 유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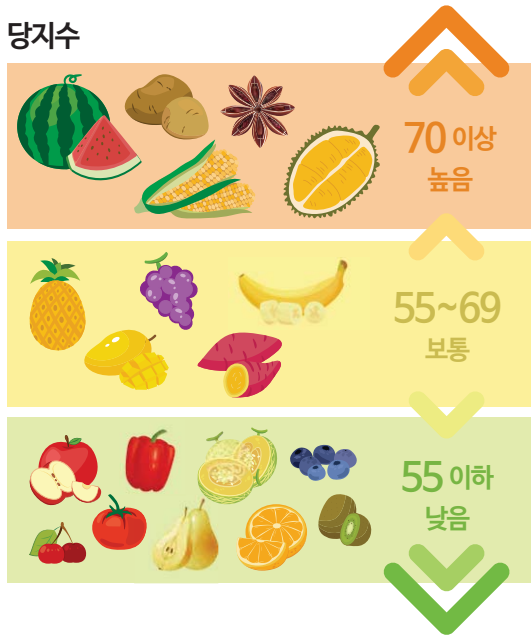
첨가당은 혈당지수가 100으로 가장 높으며, 식품의 혈당지수는 이보다 낮습니다. 혈당지수가 70 이상인 식품은 “고” 혈당지수, 56~69는 “중” 혈당지수, 55이하는 “저” 혈당지수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옥수



권오란 권사  
중구·용산교구, 홍보출판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당지수



수, 수박, 대추는 “고” 혈당지수 식품에 해당하며, 단호박, 파인애플, 바나나, 망고, 파파야, 무화과는 “중” 혈당지수 식품입니다. 그러나 포도, 딸기, 망고, 멜론, 복숭아, 사과, 키위, 블루베리, 체리, 자두, 레몬, 귤, 배, 오렌지, 자몽, 토마토 등 “저” 혈당지수 과일이 더 많습니다. 혈당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하고, 혈당지수가 높은 과일은 작은 양씩 나누어서 먹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같은 식품이라도 섭취 방법에 따라 혈당지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과일을 갈아서 섭취하거나 과즙만 걸러서 마시면 섬유소가 줄어들어 혈당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과일잼이나 과일청은 많은 양의 설탕이 사용되어 천연당이 아닌 첨가당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로(Zero) 슈거”

요즘에는 첨가당을 줄이는 노력으로 “제로 슈거” 음료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로 슈거 제

과즙음료 등 高열량·無영양 첨가당이 문제  
과일·우유는 천연당에 영양소도 함께 제공  
허브차·녹차 쓴맛 강할수록 카페인 함유량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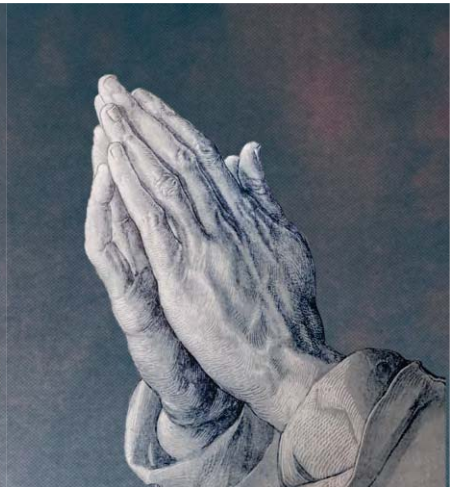
품은 어떻게 단맛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인공감미료(아스파탐, 사카린, 알룰로스,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나 천연감미료(스테비아, 에리스리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암연구소가 아스파탐을 발암가능물질(2B)로 분류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암가능물질 2B 등급이란 아직 사람에게서 발암 위험 증가가 확실하지 않은 수준으로,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제보건기구는 아스파탐이 들어있는 음료를 12캔 이내로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감미료는 제조 방법에 따라 인공감미료와 천연감미료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아미노산을 사용해서 만든 아스파탐은 인공감미료이며, 식물의 잎에서 추출한 스테비아는 천연감미료입니다. 천연감미료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과다하게 섭취하면 소화계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제로 슈거 제품이 혈당 관리에 유용하나 체중 감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중 감소를 위해서는 식사, 운동,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8잔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포만감을 주고 체액의 균형을 맞추는데 좋습니다. 여기에 신선한 허브향, 레몬을 첨가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허브차와 녹차도 건강에 좋은 음료입니다. 다만, 카페인 함유량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쓴맛이 강할수록 그리고 새싹일수록 카페인의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 있지 않은 차로는 루이보스차, 히비스커스차, 캐모마일차, 페퍼민트차 등이 있습니다. **만남**

##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14)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영락교회가 교회창립 8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이 되면 교회 창립 80주년이 됩니다. 지나온 80년을 돌아보며,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영락교회가 있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듯,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신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님들과 성도님들께도 머리 숙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베다니전도교회로 시작하여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세워진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천막교회에서 한국 최초의 대형교회가 되었고, 한국 교회의 대표성을 띤 교회로 부흥성장 하였습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영락교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혼란기에도, 수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었고, 복음으로 민족을 섬기며 민족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대명제를 충실히 이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창립 80주년을 감사하고 기념하며, 비전 100년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당회는 80주년 기념사업회(비전위원회)를 조직하고,

13개의 분과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세우고, 기획 단계를 거쳐 이제는 실행단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80주년 기념사업은 7개의 확정사역과 5개의 미래추진사역으로 나뉘어 진행 될 예정이며, 추진사역에 대하여는 사업환경과 주변상황의 변화에 따라 가변성이 높음으로 정확한 예산 측정이 어려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위기의 때에, 다시 한번 기도로 힘을 모으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한국 교회의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힘찬 도약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모두 비전 100년을 향하여 새로운 헌신의 결단과 함께 말씀 따라 힘차게 행진하며 전진하십시오.

80주년 특별헌금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이 되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80주년 기념사업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수고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확정 사역



### 예배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영락교회 창립 80주년을 맞는 2025년까지 교회의 부흥과 미래 성장을 위한 예배, 특별기도회, 정기기도회를 계속합니다. 특히 교회의 비전을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속해서 가질 것입니다.



### 선교

구원의 사명

경남 양산의 양산중앙교회(위임목사 정지훈)가 양산시에 새롭게 조성되는 신도시 사송지구(1만 5000세대) 내 종교 부지 350평을 봉헌했습니다. 영락교회는 교회 건축을 주관하여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 교육

All-Line의 세계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동안 우리는 오프라인 교회를 보완하는 온라인 교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경험했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한 다음세대뿐 아니라 많은 성도가 예배와 교육, 교제의 기회를 경험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온/오프라인이 공존하는 All-Line 교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 디지털 시스템 전반을 검토하여 변화하는 미래에 적응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과 콘텐츠를 개발할 것입니다.



### 교제

소통, 씬, 만남

가고 싶은 교회 공간, 지역 밀착형 공간, 크리스천 문화공간을 핵심 가치로 새롭게 교제할 공간이 태어납니다. 50주년기념관 1층이 〈만남카페〉와 〈서점〉으로 재구성되고, 지하 1층은 키즈존(Kid's Zone)으로 탈바꿈합니다. 온 세대가 소통하고 만나는 공간인 동시에 특히 젊은 세대와 어린 자녀 세대에게 재미와 씬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 역사

감동, 정체성

영락교회 80년 역사를 휴대폰, 태블릿, PC 등 어떤 디지털 기기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 동영상과 디지털 자료로 제작합니다. 『영락교회 50년사』 이후 30년 만에 새로 쓰는 『영락교회 80년사』는 e-book으로도 제작합니다. 아울러서 집 한 채, 옷 한 벌 남기지 않은 청빈한 목자의 삶을 살았던 한경직 목사님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평전을 발간합니다. 북한의 종교 탄압을 피해 남한으로 내려와서 20세기 후반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한경직 목사님의 신앙 유산을 다음세대와 공유하여 하나님 공경과 이웃 사랑을 결단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 미래 추진 사역



<b>열린 교회</b>	<b>개방형 출입구 조성 프로젝트</b> 영락교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한편, 세상을 향해 열린 공간을 통해 교회가 보다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b>디아코니아</b>	<b>사회와 교계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프로젝트</b> 한국 교회와 사회에 복음의 선한 감동을 주는 ‘봉사와 섬김’ 사역을 확대하여 주님이 명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디아코니아 학교를 통해 돌봄 사역을 추진합니다.
<b>아가페 센터</b>	<b>사랑부 지체들의 재활 및 노후생활 프로젝트</b> 영락교회가 섬기는 사랑부 지체들의 지속적인 재활과 안정된 삶을 위한 시설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b>교회시설 개보수</b>	<b>교회 노후시설 개보수와 미래환경 개선 프로젝트</b> 50주년기념관과 본당 등 노후한 교회 건물이 많습니다. 꼭 필요한 리모델링을 통해 예배·선교·교육·봉사·성도의 교계에 최적화된 환경을 갖추겠습니다.
<b>목양관 리모델링 및 증축</b>	<b>목양관 리모델링 및 증축 교역자 사택 개선 프로젝트</b> 건축한 지 30년 지난 목양관이 매우 노후했습니다. 목양관을 리모델링 및 증축하여 외부에 흩어져있는 교역자 사택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 개요

교회창립 8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선교·교육·봉사·성도의 교제를 더욱 탄탄하게 확대하기 위한 사역들을 기도 가운데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실 예배와 다음 세대를 위한 디지털 All-Line 교회 기반을 닦는 한편, 메가시티 한복판에 위치한 우리 교회의 특성을 살려 ‘가고 싶은 교회’ ‘열린 교회’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영락교회 당회와 제직은 온전히 뜻을 모아 당장 시

작할 확정 사역과 시간 및 예산을 들여 차근차근 밟아갈 미래추진 사역을 계획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회는 특별헌금 목표액을 300억원으로 정하고 온 성도들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자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 빛으로 비추어질 기념사업 사역들을 안내합니다.



# “교회창립 80주년 기념사업 특별헌금 이렇게 하세요”

## 1 특별헌금 작성서를 씁니다

성도 개인별로 교회창립 80주년기념 특별헌금 작성서를 쓴 후 헌금방법을 골라 제출합니다.

▪ **작성 기간**: 7월 23일(주일) ~ 8월 13일(주일), 4주간

▪ **제출 하실 곳**: (주일) 50주년기념관 만남 카페, 베다니광장, 봉사관(마당)

※ (주중 및 기간 이후에는 작성하신 특별헌금 작성서를 행정처에서 접수하거나, 교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헌금함에 넣으시면 접수가 됩니다.)

## 2 헌금방식을 고릅니다

특별헌금 작성서에 선택한 방법대로 아래와 같이 작성한 일자에 헌금합니다.

### ① 특별헌금 봉투

- 예배당에 비치된 교회창립 80주년기념 특별헌금 봉투에 개인이름, 생년월일, 헌금액을 적어 넣어 주십시오(개인 사항이 기록되면 연말정산 세금공제자료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매월 십일조헌금이나 주일헌금처럼 개인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금액을 특별헌금봉투에 넣어 헌금할 수 있습니다.

### ② 80주년 온라인 전용계좌(우리은행 1005-889-000080, 영락교회)

- 작성한 헌금 전액을 주일헌금 하듯이 온라인 전용계좌로 헌금할 수 있습니다.
- 작성한 월정액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12개월, 24개월, 36개월 나누어 헌금하시거나 혹은 다른 원하는 기간만큼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매월 자동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하는 방법은 각 은행 모바일 앱에서 개인 스스로 설정하거나 자동이체 방법 안내서를 참고 하세요.)
- 온라인 헌금의 경우에는 꼭 개인표식을 주의하여 표시해 주십시오.  
“야고보601120팔” (헌금자 이름, 생년월일 6자리, 팔-80주년 표시)로 하면 연말정산 헌금증명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 ③ 정기적금

- 매월 100만원 이내로 (만원에서 100만원 월 자동이체) 1인1계좌 정한 기간 (12개월, 24개월, 36개월)동안 가입하여 납입을 완료한 후, 원금에 약간의 이자를 합하여 모두 영락교회에 전액 기부됩니다. 정기적금 가입은 우리은행 중부금융센터점 지원팀이 가입을 도와 드립니다.
- 정기적금을 통한 헌금은 자동이체로 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본 적금 가입자 본인 한도 내 비과세 종합저축에 가입이 가능합니다(비과세 가입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에게만 해당 은행직원이 별도 상담해 드립니다).

## 청년부 하기선교, 연차 하루 쓰면 풀타임 참석

“올해는 하루만 휴가 사용하면 풀타임 참석이 가능하네요!” 제45차 청년부 하기선교 일정이 확정되자 사람들의 눈망울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청년부 안팎에서 모인 수많은 기도와 의견을 바탕으로, 작년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했던 일정을 벗어나 주말을 포함한 일정으로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일정은 전체 참여자의 절반 이상이 처음과 끝을 함께 맞이하여 현지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청년들의 열정과 찬양이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더 나아가 충남 지역의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8월 12일(토)~15일(화) 부여, 청양, 보령 교회서

이번 하기선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180명이 넘는 청년들이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을 전하며 8월 12일(토)부터 15일(화)까지 3박 4일간 부여·청양·보령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교역자들과 청년들이 신뢰하는 인재들이 팀장과 부팀장으로 세워졌고, 목사님, 전도사님, 멘토(지도위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능히 감

당할 수 있도록 릴레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5개 팀은 외산장로교회(본부) 및 청라중앙, 호암규암, 화산, 거전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하며, 충남 지역을 강타한 물난리 등의 현지 상황과 영락교회의 따스한 손길이 필요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중입니다.

평일과 토요일 그리고 주일 저녁에 함께 모여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모양을 비롯하여 형형색색의 구슬로 전도 팔찌를 만들어 복음의 내용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하고, 매주 수요일 진행하는 청년부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개인과 공동체에 베푸신 마음과 은혜를 나누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예배당에 벽화를 그리고, 만나권사님(생활권사님)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면서 창조-타락-구속을 다룬 연극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는 청소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거리로 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은혜도 전할 것입니다.

청년들의 이동과 식사를 도와주시는 선배님들과 지원 병력도 속속 갖춰지고 있으며, 의료진, 이·미용사, 장수사진사 등을 활용하여 전도의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씨앗을 뿌려질 수 있도록 연장연마와 하모니카 연주를 공연하시는 분들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음 들고 산을 넘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청년부의 발길에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만남**



나광호 성도  
청년부  
제78대 청년회장

### 외산교회(본부)

1. 목사가 바로 서서 양육되는 교회
2. 회개함이 있는 교회
3.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교인
4. 교회 일꾼 보내주시길
5. 전도를 통해 구원받는 성도가 날마다 늘기를  
(지난해~올해 세 가정 등록)

1. 영과 육이 건강하고 기쁘게 다닐 수 있기를
2. 지치고 힘들 때도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3. 본부 교회의 사역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밑거름이 되기를
4. 모든 사역팀이 섬김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 청라중앙교회

1. 말씀 안에서 재미있게, 의미 있게 성장하는 교회
2. 예배가 기쁨이 되며 거룩하게 부흥하는 교회
3.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4. 예수만 바라보고, 전하고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5. 교회 옆 부지 매입 및 확장에 주님의 뜻이 임하도록

1. 선교 현장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선교사역
2. 순종으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섬기는 자녀
3. 준비부터 하기선교까지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4. 모든 팀원이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건강하기를



## 2023 하기선교봉사 기도제목

본부교회, 지교회 기도제목

사역팀 기도제목



### 거전교회

1. 지역 복음화와 교회 부흥
2. 무허가 교회 및 사택의 허가, 교회 소유주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3. 교회와 사택 환경개선 & 리모델링
4. 교회 재정과 목회자 생활 안정

1.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2. 팀원들이 모든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를 깊이 만나기를
3. 기도로 준비하며, 기쁨의 순종과 화합하는 팀이 되기를

### 호암교회

1.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성도
2. 세상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3. 환우들 치유와 회복을 통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4. 호암마을의 개발과 아울러 교회도  
리모델링이 순조롭게
5.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주변 마을의 복음화

1. 하기선교를 통한 소명 확인과 겸손한 섬김,  
이웃 사랑을 실천
2. 모든 팀원의 건강과 안전
3. 하나님의 안에서 협력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4. 팀 구성원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도록

### 화산교회

1. 성령 충만한 전도자들 보내주소서
2. 교회 차를 보내주시고, 교회 사택 땅 문제 해결되게
3. 동네 불신자 중 영향력 있는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4. 새 등록 교인들이 잘 정착하여 일꾼되게 하소서
5. 교회 앞의 신촌 마을 회관을 통해 하나 되는 주민과  
전도의 불길이 일으키소서

1.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과 육이 회복되는 청년부
2.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하기선교 사역
3. 관계 중심을 통하여 하나 되는 우리 영락교회와 청년부
4. 하기선교 이후에도 충남 청양 땅에 뿌리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 언더우드처럼...섬기겠습니다

청년부 하기선교 앞두고 꿈꾸는땅, 주는나무, 광야소리, 모리아  
4개 성경부서 연합 '하늘보리기도회' 열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  
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1)

여느 겨울날, 선교사를 자원한 학생들의 모임에 참석한 한 청년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한 나라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 나라는 대략 1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며, 누군가가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인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라 여겼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예비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그 땅으로 가려 하지 않았고, 어느 교회도 그를 보내려 하지 않았으며,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점

차 더해졌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하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그 청년, 언더우드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한국 제물포항으로 첫 발을 디디게 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학교도 없고 의원도 없고 멀리서와 천대만 있는 이 땅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소설 양화진, 언더우드 기도문]

당시 한국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주님의 성전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도의 가능성이 없는 곳, 복음의 씨앗이 제대로 뿌려지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었습시다. 하지만, 메마르고 척박하기만 했던 그 땅이 이제는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처음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들을 마음에 품고 헌신과 노력으로 보살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고린도전서 3:6~7)

하나님의 선택으로 그들의 선행(先行)이 계속되어 한국이 복음의 씨앗을 퍼트리는 나라로 변모한 것처럼, 우리 청년부도 “7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반도 통일을 염두에 두고 1976년부터 총 44번 전국을 누비며 선교와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올해로 45번째를 맞이하는 우리의 국내하기선교봉사는 충남 지역(보령·청양·부여)의 교회와 다음세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섬기고 돌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예수님의 시선에 머물며 성령님의 따스함을 전하

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지역에 그리스도의 잔향이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선한 열매가 맺어지길 기도합니다.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진심 어린 기도와 애정 어린 격려로 영락교회 청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만남**

※ 출처 :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자(저자 유기성, 규장), 언더우드(저자,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 IVP), 양화진(저자 정연희, 홍성사)



전홍진 성도  
청년부 꿈꾸는땅 지기



## 벽 오르며... 신앙 문제도 풀니다

### YCC(영락 클라이밍 크루)

“우와~~”, “집중!!”, “나이스!!”

응원과 환호, 그리고 간혹 나오는 아쉬움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벽을 오르고 있는 클라이머들이 있습니다. 클라이밍 센터에 모여든 이들은 각자의 도전 과제를 선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벽을 타고 오릅니다. 이 모습은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스포츠 클라이밍 중, 가장 인기가 있는 볼더링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실내 볼더링은 대략 2~3m 높이의 벽을 암벽화 외 특별한 보호 장비 없이 오르는 운동입니다. “영락 클라이밍 크루(YCC)”는 이런 실내 볼더링을 함께 즐기는 모임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년부의 대면 모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클라이밍을 통해 많은 배움을 얻은 저는 청년부 지체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2022년 6월부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클라이밍을 통해 개인적으로 경험한 유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클라이밍은 재미가 곁들여진 전신운동으로, 특히 코어 운동 효과가 뛰어납니다. 과거 허리 부상으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었던 제가 8년째 이 운동을 지속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둘째로, 온전한 물입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벽을 오르는 동안에는 다른 걱정을 내려놓고 완전히 집중해야 합니다. 셋째로, 고강도 운동 특성상 짧은 시간 집중하여 오몸의 힘을 쏟아낸 후에는 회복을 위해 상대적으로 길게 휴식해야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볼더링의 매력은 코어운동, 몰입 효과  
대화할 시간 많아 복음 전하기도 좋아

YCC는 운동뿐만 아니라 말씀 나눔과 중보기도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이 모임이 클라이밍이라는 운동을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따라 복음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클라이밍에서는 벽을 오르는 행위를 '문제를 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매번 운동하러 갈 때마다 새로운 문제를 즐기게 됩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 끝이 보이지 않는 듯한 이 세상이지만,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늘의 문제를 즐기며 풀어나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만남**



안태진 성도  
청년부 주는나무  
YCC 팀장





## 농촌교회에 콤바인 지원 복음의 알곡도 수확하세요

### 제1여전도회, 경남 산청군 부곡교회서 감사예배

제1여전도회 임원들은 지난 6월 29일 경상남도 산청군 오부면의 부곡교회에서 <콤바인 지원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부곡교회는 2023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시편 50:5, 로마서 12:1)”를 표어로 농촌의 노동인력이 부족한 영악한 환경을 콤바인 농기

계를 이용하여 선교하고자 노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반기 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마친 후 김운성 위임목사님, 선교부 전담 조두형 목사님, 김하영 전도사님, 선교부 임원들, 제1여전도회 중앙회 임원들이 함께 모여, 조두형 목사의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서울은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였으나, 우리가 방문한 지역은 비가 약하게 내려, 예정된 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버스로 3시간 40여 분을 달려가 도착하니 부곡교회 박재관 목사님과 사모님, 지리산 자락의 진주 노회 소속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여 우리 일행을 반겨 주셨습니다.



장은희 권사  
중구·용산교구  
제1여전도회 부회장





1959년 8월에 설립된 부곡교회의 현재 주일예배 참석 인원은 재석 48명 중 16~22명입니다. 농촌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성도가 줄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더해진 상황에도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신다는 목사님을 뵈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음도 무척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2009년에 영락교회 제1여전도회가 부곡교회에 지원한 2,000만 원의 중고 콤바인을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었지만 14년 세월이 노후화되어 더는 사용할 수 없어 다시 영락교회 제1여전도회에 새로운 콤바인 지원을 요청하셨습니다. 이곳은 농촌 특성상 젊은이들이 없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선교용 농기계 지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절, 암자, 무당이 활동하며 무속신앙이 깊이 자리 잡아 영적으로 척박한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힘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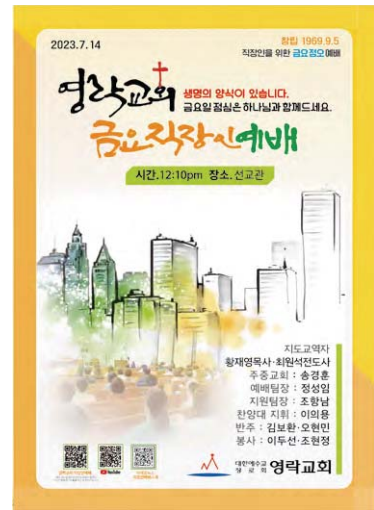
하는 농사일에 농기계로 도움을 주며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선교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기 위해, 우리는 3,000만 원의 콤바인을 지원했습니다.

부곡교회 목사님은 콤바인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의 농사일을 도우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콤바인 지원 감사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쟁기를 잡고 앞으로’(누가복음 9:61~62)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 김운성 위임목사님, 선교부 전담 교역자님들, 선교부 임원들,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함께 지원하신 1여전도회 모든 회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악하고 어려운 농어촌 미자립교회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 제1여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만남**

## 직장인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

직장인예배는 1969년 9월5일 선교관 지하에서 성경공부로 시작돼 2019년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예배가 중단되어, 찬양대 중심으로 온라인 모임을 이어오다가 19개월 만인 2021년 11월 예배가 회복되었다. (편집자)



매주 금요일, 영락교회 선교관에서 직장인을 위한 금요 정오 예배를 드립니다. 40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가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전도부 금요 직장인 예배 팀원이 미리 모여 갖추어 놓습니다. 예배 후 50주년기념관 지하 1층 친교실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간식 등을 준비합니다.



송경훈 안수집사  
동대문·중랑교구  
전도부 주중교회 차장

### 금요일 정오, 예배 참석 인원 점점 늘어나

여느 예배와 마찬가지로, 한마음으로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예배 중에는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지막 절은 회중과의 하모니로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올리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는 <말씀 데이트> 코너가 있어서, 참석자들이 받은 은혜와 궁금증 등을 적어 제출할 수 있는데, 담당 교역자이신 황재영 목사께서 다음 주 금요일에 일일이 답장해주십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이후 2021년 11월에 다시 시작한 예배에는 직장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90명 초반, 2월에는 100명대, 3월에는 120명대, 4월에는 130명대, 6월 마지막 주에는 158명이 참

석하는 등 예배 인원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 교회 식당서 점심 함께하며 심신 충전

4월에는 부활절을 맞이해 각 신우회에 부활절 계란을 전하는 ‘달려갈 계’를 계획하고 여섯 곳의 신청을 받아 황재영 목사가 직접 신우회 심방을 했습니다. 이처럼 금요 직장인 예배팀은 신우회가 조직되어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곳, 또는 신우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곳, 다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직장인예배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과 5월 중 4차례에 걸쳐 교회 주변 직장인들에게 전도용 물티슈 3,400개를 전달했

습니다. 그동안은 예배 후 나눠드리는 식사를 할 장소가 마땅치 않았는데, 행정처의 협조로 50주년기념관 지하 1층 친교부실 일부를 식사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직장인예배가 중단되었지만, 꺼져가는 불꽃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되었고, 지속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만남**



## 톡톡(talk talk) 직장인예배 참석자

### 최수연(찬양대원, 한국ESG연구소)

직장인예배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동료들과 쿠티모임을 했는데, 새로운 직장에서 이 예배를 알게 되어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예배의 찬양, 기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언제나 저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로 예배가 중단되면서, 금요일마다 당연하게 드렸던 예배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직장인 예배를 회복시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해 주시는 목사님과 영락교회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이 예배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 현창홍(우리신용정보 올지로점)

학창시절 출석했던 직장 근처의 영락교회 추억을 떠올리며 직장인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직장인 예배에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찬양 인도에 담긴 성심과 열정, 찬양대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힘찬 지휘로 인해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 황재영 목사께서 팔복을 설교하시는데 마음에 깊이 스며들며, 목사님의 밝은 표정과 설교 요약(말씀 데이터)에 대한 정성스런 댓글에도 감사합니다. 또한, 봉사자들의 친절함 점심 대접은 큰 위로가 됩니다. 직장인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하면서, 나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수진(우티 명동 본점)

회사에서 정신없이 일하다보면 어느새 마음과 영혼이 지치고 상하게 됩니다. 잘 해내야 하고, 실수하면 안 되고... 그러다가 직장인예배에 오면 오랜만에 찾은 고향 시골집에 온 기분입니다. 예배당 의자에 앉아 커다란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평안과 따뜻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섬기는 모든 분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환대가 묻어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고, 삶의 방향이 다시 정해지며,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짧지만 강력한 은혜를 받고 일어설 때면 다시 세상의 전쟁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직장인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과 함께하여 영혼의 오아시스와 같은 시간으로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황예령(가나에드컴)

어쩌다 직장인예배! 회사 새내기 두 사람과 함께 오랜만에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 모두 은혜를 받으며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새내기들은 BBB(Business Bible Belt)에서 훈련 받고 신자가 되었고, 교회에 다니지 않던 옆 사무실 직원들도 함께 참여하면서 2년이 지난 지금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배시간이 짧아 초신자들이 지루해할 시간이 없고, 예배가 끝나면 간단한 간식을 주어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서 더욱 은혜로웠습니다. (웃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자로 변화하고, 믿는 사람들은 한 주간의 시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직장인예배는 내게 주님의 기쁨을 선물받는 시간입니다.

## 직장인예배가 달라졌어요

젊은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

종전에는 예배 후 김밥만 나눠줬는데, 이젠 50주년

지하1층에 공간을 마련하여 식사하며 교제를 할 수 있게 됐다. ❤️

담당 목회자가 단순히 예배 인도에서 벗어나 새교우에게 커피 쿠폰도 제공하고, 직장신우회도

방문하며 직장인들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

전도부가 노방전도, 예배 후 간식 제공

등 예배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찬양대가 회중과 함께 찬양을 한다. 😊

영락교회 교인이 아닌 이들도 자원하여 예배를 돕고 있다. 😍

재능 기부와 제작비 기부로

아름답고 충실한 주보가 매주 발간되고 있으며, 유튜브와 SNS로 예배를 널리 알리고 있다. 👍



## 전도현장서 체험한 성령의 임재

작년에 첫 번째 전도폭발훈련을 수료하고, 1년 뒤에 다시 두 번째 단계에 참여했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받고 계속해서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에 동참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받은 이후, 이번에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전도폭발훈련의 가장 큰 매력은 복음의 힘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직접 볼 수 있는 점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경험했습니다. 특히 제 어머니의 경우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 영적으로 약해진 친정엄마가 전도대상 1번

제 어머니는 오랫동안 영락교회에 다니셨고,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권사님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원의 확신이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최근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영적으로도 많이 약해지신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영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희 팀은 어머니의 신앙 회복을 위해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들으며, 함께 복음을 듣는 새신자에게 간증까지 하시는 어머니의 신앙 회복을 보았습니다. 새신자들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저희와 함께 그들의 결신을 돕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복음이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치유와 회복을 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시며 기뻐하시는 걸 느꼈습니다. 이

런 기쁨을 어디서 다시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처럼, 아무리 구원의 확신이 있을지라도 연약한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 거절당했을 때조차 주님 능력 안에서 담대해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철저하게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리 친하게 지내지 않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저와 친한 크리스천 동료가 그분을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제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서 크리스천 동료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려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과거에 천주교 신자에게 상처받았다는 그분은 종교에 대한 개인적 신념으로 강한 거부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이야기를 극히 싫어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질문에도 단호하게 거부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천국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 있었는데, 그분은 천국을 믿지 않으며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지현 집사  
노원교구  
전도훈련학교 39기 토요일반

대답하였습니다. 이성을 믿고 신앙을 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비록 그분에게 거부당했지만, 전도를 시도해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그분을 향한 구원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도 결국 구원받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동료에게 전도를 시도하기는 쉽지 않았습다. 하지만 저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고, 나의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라

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전도폭발훈련은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장입니다. 이런 훈련에 두 번 초대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같은 사명을 가진 팀 그룹장, 훈련자, 훈련생분들과 함께하며 믿음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는 대면으로 교제하며 함께 전도하고,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감사했습니다. ‘동지’라는 말은 ‘같은 목표나 의지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데, 저희 팀원들은 물론, 같이 훈련을 진행한 모든 분이 오직 ‘영혼 구원’이라는 한 뜻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으로써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전도 행진이 되길 바랍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남**

## “전도할수록 더 큰 은혜 경험”

이번 <화요전도훈련>을 통해 전도훈련학교의 꽃은 현장에서 직접 전도하는 것임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면서 저 자신도 이 복음을 다시 듣게 되어,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주 팀 전도를 할 때, 많은 사람으로부터 거절 받기도 했지만,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하심을 통해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러 가는 중, 함께하는 기쁨과 담대함을 주시고,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준비해주신 전도대상자를 만나게 해주셔서,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기쁨과 감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 어느 날 만난 한 분이 시간이 부족해 다른 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사이에는 훈련생과 훈련자가 함께 중보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약속한 날 팀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면서 성령님이 그분의 마음 문을 열어주신 것

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는 언니가 교회 다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 한옥마을에서 만난 한 분은 불교를 믿으시는 친정 어머니가 아주 편찮으셔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 분은 미국에서 잠시 한국에 왔는데,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우리를 만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확신한 그분은 어머니에게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 병원 앞에서 만난 한 분은, 교회를 잘 섬기던 매제가 암으로 힘들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에 마음 아파하고 있었는데 복음을 듣게 되어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매제에게도 복음 책자를 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 “복음 전도자로서 평생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전도훈련〉 매시간 생명을 주는 말씀, 찬양, 행복한 강의, 그리고 따뜻한 그룹모임을 통해 회개와 감사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눈물로 기도해주신 화요전도팀 모든 분과 기도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전도자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세계 열방을 품으신 성령님께 붙잡힌 복음 전도자로서 평생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남**



안경선 성도  
마포·영등포교구  
전도훈련학교 15기 화요반

## 2023년 하반기 전도훈련학교

**토요반 : 2023년 9월 2일~12월 2일**

(매주 토요일, 오후 2시~4시 30분, 봉사관 지하예배실)

**화요반: 2023년 9월 5일~12월 5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20분~12시 30분, 50주년기념관 4층)  
1~4단계 대면, 5단계 온라인(Zoom)

**신청방법 : QR코드 수시접수**

**신청기한 : 8월중 마감(추후 주보공지)**



문의: **토요반**(010-7492-0624) **화요반**(010-3354-3835)

## 은혜로 드리는 ‘오늘 예배’

## 매일 주안에서 행복합시다



한영훈 전도사  
인천교구  
예배위원회(기도)

우리는 COVID-19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는 역사적인 변화의 발판이다”라고도 하지만, 기억에서 지우고 싶을만큼 너무 힘들었던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이 여러모로 변했고, 교회도 특히 예배의 자리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와 온라인 성찬 등 새로운 형태의 예배에 대한 이슈들이 등장했고, 이로 인해 ‘예배에 대한 회복’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는 ‘예배’라는 단어의 근원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손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의미하며, 더 깊은 속뜻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나타냅니다. 제가 ‘예배’를 서두에 언급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의 정체성은 예배에서 시작해 천국 문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자” 실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이후 목회자 훈련생으로서의 과정이 순조롭게 인도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이 확신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오전 수업 후 드리는 예배 시간이 제게 가장 회복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오전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 반복적이고 의례적인 예배 시간에는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화장실에서 글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력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노력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낀다면 누구든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미소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래! 다시 한 번 정신 차리자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연처럼 다가온 하나님의 섭리였을 것입니다.

목회자 훈련생 3년이 지나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가 가장 집중하는 것은 ‘예배’를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한 시간의 예배에서 부르는 찬양, 기도, 설교가 내게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마음이 집입니다. 또한 이 ‘예배’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목회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2003년 6월 6일이 교회창립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연약하고 부족하여, 군데군데 섬김이 필요한 곳을 함께 메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오히려 은혜였습니다.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간절함을 배웠습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면서 몇 가지 습관(의례)들이 생겼습니다.

개척교회를 섬기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매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는 성도들이 그저 반가웠습니다. 작은 교회에 새신자가 오면 얼마나 기쁘던지.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 입구에서 있게 되었고, 작은 의례가 생겼습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과 3초간 인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웃는 얼굴에 무심히 지나가는 분들도 있었지만, 상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게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의례는 주일마다 정확히 12시 30분에 하는 것인데, 길지도 않습니다. 5분이면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준비된 음식을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상다리를 펴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 교회에 식당이 생기고 나서부터 동생들과 함께 지속해온 습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습관이 일상 예전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삶에서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 ‘오늘’이라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원하는

대로 이뤄지지 않고, 피곤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하루는 지루하고, 허리도 아프고, 인생은 좁고 허무하게 보이고, 걱정이 많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예배를 구성하는 습관 속에 살아갑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처럼, 이 시대의 제사는 내 삶의 예전을 통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은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경배하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입니다. 평범한 우리가 종종 잊게되는 매일의 실천을 하루의 예배로 보아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주님이 구별해 주신 날 우리 모두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시편 118:24).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하루를 구별하시고, ‘이날’이라고 부르며 축복하고 계십니다.

##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이 시대에 예배자로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일상에서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미 사랑받는 존재이니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인생에서 나의 능력, 성공이나 실패, 유명여부는 더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받는 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을 잘 살고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승리하여, 거룩한 일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머무는 예배자가 아닌, 교회를 나서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건강한 예배자로서의 일상을 사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락교회를 통해 한국 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만남**

## 모이는데 진심 종로·성북의 자랑



우리 교구는요 언제 어디서나  
정말 많이 모여요



우리 교구는 모이기에  
전력을 다 하는 교구입니다



특히 남선교 지회 때도 어려운  
가운데 많이 모이고 있어요



교회 전체 행사 때는 평상시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도 참석하려고 애쓰면  
서 많은 협조를 하고 있어요

종로·성북교구(10교구. 이후림 목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의 대답은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들은 최근의 몇 가지 행사를 통해 그 교구가 가장 자랑스러운 이유를 당당하게 말하게 됐습니다.

지난 6월 마지막 주간, 하반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회에서는 특별히 5개 교구와 갈보리찬양대의 특송이 있었습니다. 6월 30일에는 종로·성북교구가 특송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에도 불구하고 60명이 넘는 교구 식구들이 모여서 찬양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15명이나 되는 남선교회원들이 이 찬양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남선교회원들과의 연습 시간 맞추기도 어려웠을 터이고, 출근을 준비해야 하는 평일의 이른 시간에도 찬양을 위해 모인 모습은 놀

라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라는 가사의 혼성합창 찬양이 새벽 교회를 메웠을 때, 본당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큰 은혜를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7월 7일에 열린 1차 <특별 금요상산기도회>에서도 종로·성북교구는 또 한 번 흠뻑 뉘었습니다. 총 6개 교구 중에서 5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영락기도원에 참석했는데, 그중에서 종로·성북교구 식구들이 110명이었습니다. 이는 전체 참석자 중 5분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종로·성북교구의 높은 단결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로·성북교구의 1남선교지회장인 홍영남 장로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열리는 1남 중앙회 기도회에서 최고의 출석률을 기록하며 하반기 출석률 시상에서 1등 상을 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엄지척입니다. 살짝 도전 의식이 발동하네요.



7월 7일 1차 산상기도회에 참석한 종로·성북교구 성도들

그렇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며 실천에 옮기는 종로·성북교구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 18개 교구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도전 의식을 일으키는 모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은 교구 식구들과 교역자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이며 굳건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70개 구역으로 이루어진 종로·성북교구는 재적인원 이 약 2,700명입니다. 2명의 시무장로와 함께 교구 운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교구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역 활동에 있어서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지혜를 모아 70명의 구역장이 모두 세워졌으며, 각 구역의 형편에 맞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인해 흩어졌던 다수의 교구 식구를 다시 모으는 노력으로 많은 성도가 교구로 돌아왔습니다.

박명일 전도사님은 교구를 섬기는 동안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며, 잠시 주저하더니 “교구의 모든 식구께 정말 감사합니다”, “교구 업무뿐 아니라 여러 부서의 업무까지 맡아서 바쁘지만, 교구의 모든 식구가 크고 작은 모든 부탁에 흔쾌히 도와주셔서 많은 도움과 힘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후림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아사교생, 아생교사” 즉, 나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교회와 교구, 그리고 교구 식구들을 섬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봉사자들과 모든 성도에게도 큰 메시지

## 교회 행사 참석률 잇따라 1위

하반기 맞이 특새·1차 산상기도회 등  
참석률 연타석 홈런 타교구 부러움 사  
2700명 교구성도들 ‘아사교생(我死敎生)’ 섬겨

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때로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섬기겠다는 의미로 마음 안에 새겼습니다.

목사님은 “화합”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18개의 교구가 있고, 많은 성도가 각자 다양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정답이라는 생각이나 우리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은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나란히, 그들과 같은 높이와 속도로 즐겁고 행복한 목회를 하겠다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정 가득한 교구 식구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섬기는 전도사님, 특별한 각오와 마음으로 교구를 섬기는 목사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장로님들이 있는 종로·성북교구는 한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종로·성북교구를 응원합니다. **한남**

취재 이재항 기자



## “키오스크 이젠 자신 있어” 어르신들 혼자서도 주문 척척





## 상반기 ‘똑똑 키오스크’ 교육 프로그램 큰 호응

어르신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주거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영락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1990년에 도입되었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시설 입소를 최대한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서비스센터는 1992년에 정식으로 정부 보조를 받으며, 저소득 어르신 중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상담, 여가·문화·종교 프로그램, 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락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본사업 외에도 하남시에서 1,000여 명 어르신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도시락 배달사업,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노인 상담, 종합지원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대면 서비스에서 비대면 서비스로 많이 전환되었습니다. 식당, 카페, 마트 등에서는 사람 없이 기계 앞에서 주문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이 많이 도입되었고, 이러한 변화로 어르신들은 위축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어르신들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더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취약한 어르신들의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똑똑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매장에서 주문하거나 구매할 때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매장마다 버튼과 진행 방법이 달라서 어르신들은 새로운 키오스크를 마주했을 때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

한 매장의 키오스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음식점, 편의시설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했고, 키오스크 프로그램의 특성상 1:1 교육과 안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진행했습니다. 참여한 어르신들은 처음에는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러 번의 무인 주문 매장 방문을 통해 직접 구입하고 주문해보니 이제는 다른 곳에서도 시도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은 혼자서 근처 매장을 방문하여 키오스크로 주문할 수 있었고, “영락에서 교육받아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감사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영락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인 “내가 꽃씨를 뿌리면 꽃이 많이 피고, 꽃이 피면 열매를 맺을 거다”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영락이라는 씨앗을 뿌려 행복의 꽃을 지역사회 안에서 피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만남**



김교심 센터장  
영락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 초등생 때 멈춰버린 믿음의 시계 엄마 돼서야 예수님 사랑에 눈떠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대부터 3대째 영락교회에 출석하는 시댁을 따라 저도 영락교회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미션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와 가까운 생활을 해 왔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찬양을 불렀는데,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짊어서 던지시리라.’**

이 찬송가에 ‘짊어서 던지시리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을 ‘짊어서 던지시는’ 것일까요? 이 점이 어릴 때부터 궁금했지만, 그 답을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된 이후 ‘종교는 선택 사항’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임을 잠시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서야 예전에 궁금했던 질문을 던져보았



황지원 성도  
종로·성북교구

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찍어서 던지시다니, 너무나 처사 아니냐’라며 약간의 억울함을 느끼며 말이죠. 남편이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벌을 주실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인 거야” 가치를 꺾어 던질 때 가장 마음이 아픈 건 포도원 농부라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남편의 대답을 듣고 나서, 어릴 적에 찬송가로 위안을 얻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잊고 있던 믿음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올해 초부터는 영아부 예배도 함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믿을 의시계가 멈춰버린 저와 아이의 수준이 비슷해서, 이 또한 예수님이 인도하심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문득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몸을 다내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아이를 바라보며, ‘예수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하고 생각하곤 합니다. 이보다 더 깊은 사랑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보다 더 깊숙하게 제 아이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 안에서 평화롭고 단단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일상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영락교회 식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6월 18일 주일 새가족 환영회

## 원망하던 내 기도 감사로 채워졌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성실하고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나태해져서 예배와 기도에 빠진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50년 동안 근무한 직장에서도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으며, 교회 봉사도 성실하게 잘 감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감사하다’, ‘은혜받았다’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다른 성도들이 너무 과장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참,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상을 주셔도 되었을 것을’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난은 더욱 견딜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애기하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교회 성도에게 말하자니 남들이 나를 나쁘게 볼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게 주어진 피난처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 바로 영락교회 베엘의 〈개인 기도실〉이었습니다.

회사가 종각에 있어서 새벽에 기도하고, 점심시간에도 달려가고, 저녁에도 퇴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동안 화를 내고 원망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저는 십일조와 감사기도를 빼먹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일에 놀러가고 새벽기도를 안 나와도 잘살던데,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나요?”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교구 목사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기도하세요” 하였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대답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편 3편과 4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 중심을 받았다. 두려워 마라! 나는 세상을 이긴 자다.”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저의 오만함과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후부터 제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감사의 은혜가 없으니 기름칠하지 않은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저 신앙이 어렵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이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고난을 통해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괴롭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은 제 기도 속에 ‘그분’으로 바뀌었고,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여 제 믿음을 바꾸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분이 정말 고마워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복 주시고 저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와 감사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컸는지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저의 삶에 아직도 여러 시련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혹 머리를 부딪혀도 “아버지 감사해요. 헛생각하지 말라고 꿀밤 주셨죠? 고맙습니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49장 15~16절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저를 잊지 않으시고 제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손바닥에 새겨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에 가는 날이 살아왔던 날의 반의반도 남지 않은 듯합니다. 아버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제 자녀들과 지인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신앙을 갖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참된 믿음을 갖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만남**



이영자 은퇴권사  
종로·성북교구  
영락기도대



##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부산 적신 ‘천상의 화음’



베들레헴찬양대가 창단 40주년을 맞이하여 부산에서 개최한 찬양선교 소식입니다. 백정진 집사의 지휘와 김진 집사의 오르간 연주로 부산 지역 세 곳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주님이 내려 주신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베들레헴찬양대는 1982년 2월 첫 주일 박영근 장로의 지휘로 5부 예배를 통해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40년이 넘게 우리의 찬양이 이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당시에 참여했던 은퇴 대원들은 이 시기를 회고하면서 “150명 찬양대원이 감격과 감사로 첫 찬양을 드린 순간이 꿈만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산 찬양선교 일정을 소화하며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여러 번 들을 수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는 후배 찬양대원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 1982년 출범... 40년 추억이 ‘방울방울’

첫째 날에는 부산 동래구의 <동래중앙교회>에서 찬양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르간 전주로 시작된 예배는 16세기에 작곡된 입례송영 ‘오 자비하신 구주여’를 비롯하여 모두 열 세곡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첫 기도와 시편 3편의 말씀 봉독 후에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를 찬양하여 불쌍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귀하신 주여, 내 손 잡으소서’ 찬양 후에는 찬양 가사를 기도로 드렸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비록 더딜지라도’ 찬양을 통해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확신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

편 말씀 봉독과 함께 들려진 시편 23편 찬양(김두완 장로 작곡, 박영근 장로 편곡)을 통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베들레헴 남성대원이 주축인 <바요나중창단>은 ‘내가 구하는 것이’를 찬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간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들레헴찬양대를 지도하시는 탁현수 목사의 설교 말씀으로 예배는 더욱 은혜가 넘쳤습니다. 시편 63편 말씀 후에는 박영근 장로의 역작 중 하나인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양함이어’를 찬양하며 그분의 깊은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경직 목사께서 글을 만드시고 박영근 장로가 작곡한 찬송가 444장 ‘갯세마네 동산에서’를 성도들과 함께 찬양할 때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르간 후주 후에는 동래중앙교회 정성훈 위임목사의 정중한 앙코르 요청으로 ‘귀하신 주여, 내 손 잡으소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정관명성교회>에서의 첫날과 같은 순서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관명성교회는 기장군에서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초·중등 학생으로 구성된 찬양대와 함께 박영근 장로가 작곡하신 444장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많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감동적인 찬양대였습니다. 중등부 학생 중에는 아직 변성기가 지나지 않아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없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찬양할 때는 왜 그리 가슴이 먹먹하던지요.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신 찬양이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비록 성인 찬양대를 구성하기 어려운 교회였고, 오르간이 준비되지



7월 7일 셋째날 양산중앙교회 할렐루아찬양대와 연합 찬양

않아 피아노로 찬양했지만, 참으로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양산중앙교회에서 찬양했습니다. 정지훈 위임목사는 영락교회 부교역자로 계실 때의 추억과 함께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양산중앙교회 할렐루아찬양대와 함께한 찬양은 또 다른 감격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함께 찬양한 444장은 찬양선교 이전에 악보를 전달하여 꼼꼼하게 연습한 결과 베들레헴 찬양대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오르간 후 주 후 정지훈 위임목사의 세심한 배려로 요청된 앙코르 찬양으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양함이어'를 드렸는데, 베들레헴 찬양대의 창단부터 30년 동안 지휘하셨던 박영근 장로 생각에 제대로 찬양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와 영광을 올립니다.

찬양선교에는 예쁜 어린이 가족도 함께했습니다. 소프라노 독창자 한송이 대원의 딸 김한별 어린이는 이번 찬양선교가 끝나는 날이 마침 첫 번째 생일 전날이었습니다. 함께 축하했고, 정지훈 목사의 축복 기도를 받는 기쁨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귀하신 주여, 내 손 잡으소서'의 독창자 조한윤 소프라노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민하, 민규)은 찬양선교의 또 다른 청량제였습니다. 문혜원 대원의 딸 이하연 자매의 봉사도 참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찬양 예배 내내 어린이들을 잘 돌보아 주신 강정순 권사님의 수고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미리 준비하시고 선하게 이끄셔서 부산 찬양선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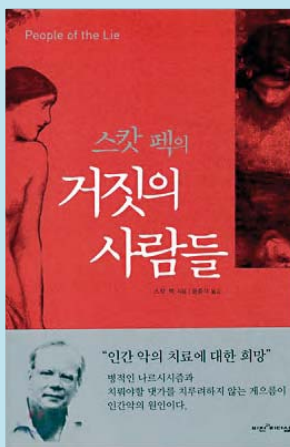
### 3일간 3편의 시편 주제로 감동의 찬양

찬양선교를 하는 동안 우리는 부산의 아르피나유스호스텔 근처에 있는 수영로교회에서 매일 아침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교회에서 제공해 주신 정갈한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자제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수영로교회는 부산 3대 교회 중 한 곳입니다. 장소를 미리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김경호 안수집사  
강동·송파교구  
베들레헴찬양대

## 거짓의 사람들



M. 스캇 펙 지음 윤중석 옮김  
비전과리더십, 2007년

모조품(模造品)을 찾으려면, 그 진품(眞品)을 충분히 알아야 하지만 때로는 가짜를 통해 진품의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하도록 도와주는 ‘악(惡)’에 관한 책입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상담심리학으로 유명한 저자 스캇 펙 박사는 그의 이전 저서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기독교 전통과 그의 임상 경험을 토대로 ‘거짓’과 ‘악’에 대해 이야기 해줍니다.

『거짓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학교 과제로 읽기 시작했지만, 온종일 손을 뗄 수 없을 만큼 흥미진진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신앙에 관해 이야기할 때 다루기 어려운 ‘악’이라는 주제를 일상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가정, 교회, 사회, 환경에서 ‘악’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실재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가장 놀란 점은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주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악(惡)이 자기 경험을 통해 선명하게 폭로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악’을 주제로 다루는 책이지만 그 결론은 진리를 따르는 우리의 신앙 여정에 관련한 본질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원동력이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약속의 말씀(로마서 12:21)에 순종할 수 있는 근원임을 알려줍니다.

열정의 계절, 악의 실재로 인해 거짓된, 또 우리의 죄로 인해 연약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 책을 통해 이 여름보다 더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하심을 발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강승훈 목사  
관악동작교구  
경조부  
홍보출판부





## ‘이 시대 리더십’ 북적북적 공모

9월 1일~30일 독후감, 웹툰, UCC 접수

우리는 타인과 지속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활한다. 넓게는 종교 지도자, 부와 권력을 지닌 기업인 등과 교류하고, 좁게는 가족, 지인, 동료 등과 생각을 나누며 살아간다. 성도인 우리는 이런 상호작용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기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해야 한다.

최근에는 불규칙한 날씨 변화, 국제 분쟁, 재산의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겪어야 했다. 이런 일련의 문제들로 인해, 그동안 진리라고 받아들였던 우리의 가치들이 도전받고 있다. 게다가 ‘옳고 그름’의 절대적 기준에서 ‘좋고 나쁨’의 상대적 기준으로 판단의 잣대가 이동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교회와 크리스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와 반기독교적인 감정이 만연한 시대

에 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크리스천들이 속한 조직이나 모임에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며, 이런 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크리스천은 이를 위해 ‘어떠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리더이어야 하는가?’에 관해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

캄캄한 어둠 속을 향해하는 배가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빛을 밝혀주는 등대처럼, 선한 말과 행동으로 빛을 비추며,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던 한경직 목사님과 같은 교회의 큰 어른이 그리운 요즈음이다. 이런 바람에서 출발하여, 올해의 독서행사 공모전은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상(像)”이라는 주제로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무엇인가?”에 관해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책(Book)을 읽고 감동을 적어 나누는

## 2023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 주제 :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 상(像)

- 나는 어떤 리더인가? 나는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 한경직 목사의 신앙과 삶에서 나타난 리더십

### 응모대상 및 기간

- 청소년, 대학·청년, 장년
- 9월 1일(금)~9월 30일(토)
- 제출 : clibmi@naver.com 또는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3층

## 응모부문

구분	분야	제출형식
한경직 따라살기	한경직 리더십 실천사례	A4 10매 내외, 글자폰트 12, 줄간격 160% • 서론-본론-결론을 갖춘 자유형식 • 제시된 주제와 연결하여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체험했던 내용이나 느낌 • 조직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을 이룬 사례, 봉사를 통한 이웃 사랑, 자신의 변화 등
일반	독서감상문	A4 2~3매 내외, 글자 폰트 12, 줄 간격 160%
	회화, 웹툰	JPG 파일(수상자는 원본 제출)
	UCC, 메타버스	분량 : 3분 이내, 500MB 이하, 해상도 (640×480), 파일형식: AVI, MPEG, WMV
	자유형식	제시된 주제와 선정도서를 참고하여 자유형식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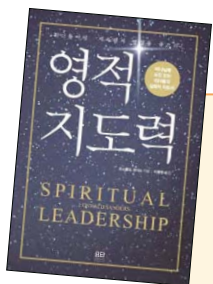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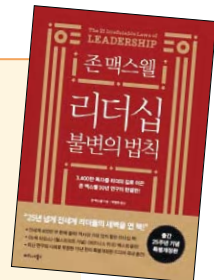


## 선정도서

### 01 일반부

「리더십 불변의 법칙」 존 맥스웰, 비즈니스북스, 2023

25년 동안 세계에서 400만 부 이상 판매되어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리더십 분야의 독보적 밀리언셀러'이다. 저자의 50년 연구의 완결판으로서 리더십 노하우의 발전과 실천을 응집한 이 책은 유명한 리더들의 성공과 실패 사례로 리더십의 핵심 지침과 원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했다. '한계의 법칙', '영향력의 법칙', '유산의 법칙' 등 21가지 법칙으로 체계화해 쉽게 리더십을 체험하고 익힐 수 있게 도와준다.



「영적 지도력」 오스왈드 샌더스, 요단,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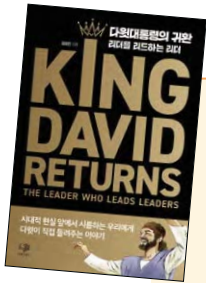
국내에서 1982년 7월에 번역돼 지금까지 2판 20쇄, 3판 16쇄를 거쳐 개정판까지 꾸준히 선택받은 리더십의 고전이다. '영적 지도력이란 무엇인가?'에서부터 성경 속 바울서신과 베드로 서신에 나타난 지도자상, 지도력의 필수 자질, 지도자의 기도, 독서, 시간 관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며, 지도자가 치러야 할 대가와 책임 및 위험 등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꿈꾸는 그리스도인이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기에 좋은 책이다.

「미래형 리더가 온다」 백성훈, 꿈미, 2022

저자가 수년간 찬양 사역 단체, 학교, 기업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리더십을 고민하고 훈련한 경험을 통해 미래형 리더가 가져야 할 신앙과 기능의 전문성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세대 차이를 넘어 '정서' 차이를 인지하고, 대화와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 미래형 리더십의 출발점으로 본다. 건강한 리더십 회복과 건강한 공동체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02 공통(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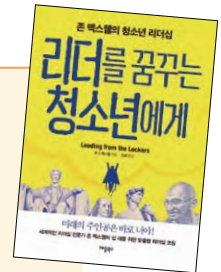
「다윗 대통령의 귀환 : 리더를 리드하는 리더」 최하진, 나무와 가지, 2021

저자는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필요한 모범적인 리더의 모델로 목자, 시인, 하프 연주자이며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친숙한 성경의 다윗을 찾았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로 꼽히는 다윗의 삶과 교훈을 일인칭 시점으로 그의 인생과 리더십을 깊이 있게 다루었다. 특히, 다윗이 청소년기에 갖췄던 스펙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여 경쟁 구도에서 사는 현대의 청소년과 부모에게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

## 03 중·고등부

「리더를 꿈꾸는 청소년에게」 존 C. 맥스웰, 애플북스, 2021

역사적으로 유명한 리더에 관한 소개에는 늘 떡잎부터 남달랐음을 보여주는 어린 시절 일화가 등장한다. 훌륭한 리더의 자질은 타고나는 것일까? 사실 리더십은 배우면서 키울 수 있는 능력이다. 이 책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실천 방법, 구체적 사례, 노트 적기 등을 활용해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학교와 동아리 등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답을 찾고 자신 안에 내재한 리더십을 발견하여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괜찮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백수연, 보랏빛소, 2018

현대사회는 공동체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제대로 이끌 줄 아는 '셀프 리더십'이다. '셀프 리더십'은 청소년기의 꿈과 삶에 관해 고민하고 판단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인생의 황금기인 10대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하며 책임질 줄 아는 용기를 배워야 한다. 이 책은 셀프 리더십에 필요한 자존감, 창의성, 자기주도성, 회복탄력성, 협업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이론과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 자세한 내용은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http://library.revhan.net/#>) 또는 영락교회 홈페이지(<http://www.youngnak.net/>)에서 확인  
※ 문의 :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02)2280-0293

## 성경과 수학의 고리, 재밌게 풀어줘

계영희 명예교수 ‘수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경이야기’ 특강을 듣고

몇 년 전, ‘미술과 수학’이라는 주제로 고등학교 실용 수학 교과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미술 작품과 수학 사이의 관련성이란, 이 난감한 주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계영희 교수의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주님을 만난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모든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망의 싹이 생겼습니다.

### 편견을 깨는 놀라운 이야기

많은 사람이 ‘수학’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대다수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어렵게 여겨지는 수학을 성경과 결합하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독교 인문학 <수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경이야기>를 들으면서 수학은 어렵기만하다는 편견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성경을 통해 수학을 배우는 새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수학에 서툰 사람

들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사역을 명화로 설명한 강의를 통해 모세와 야곱의 시대 이집트 문화와 수학적 탐구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관련 명화를 감상했습니다. 또한 유클리드 기하학, 건축물 등을 포함한 문화적 측면에서 수학적 사상을 기독교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감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 원근법과 수학은 어떤 연결이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그림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충격스러운 순간을 그린 것입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배신할 것이라고(마가복음 14:18) 폭탄선언을 한 순간, 충격에 빠진 열두 제자의 모습과 감정을 생생하게 묘사했지요. 이 그림은 원근법, 즉 눈에 보이는대로 가까운 것은 크게 먼 것은 작게 그리는 방법을 사용한 작품입니다. 이 원리는 3차원 입체를 2차원 평면에 표현하는 회화기법으로 르네상스 시대부터 사용되었어요. 하지만 이 원근법이 수학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수학의 한 분야인 <사영기하학>에서 원근법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영(Projection)’은 3차원을 2차원에 투영시킨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물질의 일부 속성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점, 선, 면은 2차원으로 그려질 때도 그 형태를 유지하지요. 하지만, 길이, 비율, 각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평행선을 사영하면 한 점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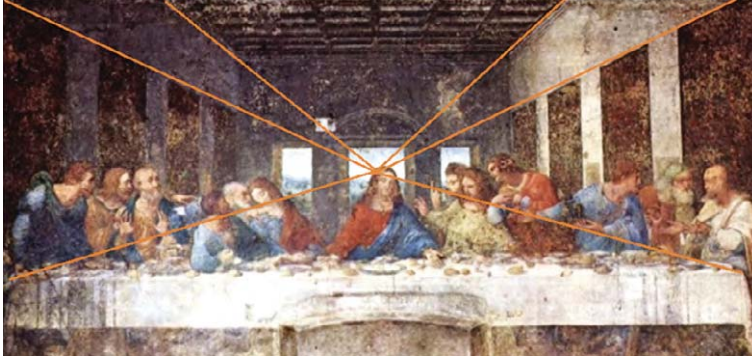


한철형 집사  
강남교구  
대학부 교사



원근법과 사영기하학, 천지창조와 진약수...

수학은 어렵다는 편견 산산이 깨져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최후의 만찬>



입체감 없고 사실감이 떨어지는  
두치오의 <최후의 만찬>

서 만나는 직선이 되듯 미술의 원근법과 사영기하학은 놀랍게도 비슷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원근법은 사물의 멀고 가까움을 표현하기 위해 천장의 평행선들이 한 점에서 만나도록 그리는데, 이 점을 ‘소실점(消失點)’이라 합니다. ‘최후의 만찬’ 그림에서도 예수님의 머리 뒤에 소실점을 설정했죠. 이런 소실점을 사영기하학에서는 ‘무한원점’이라고 부릅니다.

### 성경과 수학의 만남!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표현하여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고, 비율이 적용된 피아노 음계, 미술 작품, 철학, 인문학 등 일상생활에서 갖가지 수학적 이론과 활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전수(Perfect number)’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어떤 수의 진약수를 모두 더하면 그 수 자신이 되는 숫자를 말합니다. 6이 그 예입니다. 6의 진약수는 ‘1, 2, 3’이고, 이를 모두 더하면 ‘1+2+3=6’, 즉, 그 수 자신이 됩니다. 따라서 6은 완전수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6일 동

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날과 6이 완전수라는 점은 서로 연결 고리가 됩니다. 완전한 성경을 수학으로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성경 속에서 수학적 요소를 찾아보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번 강연은 성경과 수학의 연결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성도에겐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정보를 체감해 보는 기회가 되고, 수포자(수학을 포기한 사람)에게 어렵게만 느껴졌던 수학을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 흥미로운 기회가 됩니다. **만남**

『만남』과 함께하는 기독교 인문학 강좌  
〈수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경이야기〉 6강

\* 8월 27일(주일) 오후 1시

\* 50주년기념관 503호

## 뜨거운 은혜·성령의 축제...특별금요산상기도회



지난 7월 7일, 14일, 21일에 <특별 금요산상기도회>가 저녁 7시에 있었다. 이번에는 4월에 본당에서 있었던 제63회 산상기도회와 다른 구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기도회에서는 영락기도원, 교회 본당,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모두가 동시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8개 교구를 6개 교구씩 세 번의 차수로 나누어, 해당 차수에 속한 교구는 기도원을, 나머지 교구들은 교회 본당이나 유튜브 생중계를 이용하도록 안내되었다. 차수별로 강사 목사님 세 분을 모셔 서로 다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다.

1차는 기도원에 1, 4, 7, 10, 13, 16교구의 615명이 참석했고, 홍용희 목사(부산, 성민교회)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없는 것이나 안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면, 주님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다시 물으시며 "믿음과 말씀과 기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와 묵상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2차는 비가 많이 오는 우중에도 기도원에 2, 5, 8, 11, 14, 18교구의 604명이 참석했고, 김기덕 목사(진주,

진주교회)가 '끈질긴 기도로 승부를 내라(누가복음 11:9~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기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하며, 기도밖에 길이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차는 기도원에 3, 6, 9, 12, 15, 17교구의 750명이 참석했고, 이근형 목사(부산, 소정교회)가 '여기 앉아 있으라(시편 63:1~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기도의 자리에 대해 말씀하시며 메마르고 황폐한 광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 일상 속 자기만의 골방이 모두 그 자리임을 강조하였다.

온·오프라인으로 총 16,632명이 참석한 이번 기도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4년 만에 기도원에서 진행되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식사가 부족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성도가 참여하여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다. 뜨겁게 기도하고 삶 속에 깊고 넓게 다가오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기쁨의 꽃을 가득 피워낸 이번 산상기도회는 새로운 구성에 차분한 듯 화려하고 뜨거운 은혜와 성령의 축제로 막을 내렸다.

취재 이재향기자 사진 원종석기자

## 부모님 기도 힘 받아...교육부 여름사역 '착착'



중등부 교사기도회

7월 1일 영아부와 베드로부의 여름성경학교를 시작으로 8월 17~19일 대학부의 여름수련회까지, 7월과 8월은 교육부의 여름 사역이 활발하게 준비되고 있다.

여름사역을 위해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는 7월 9일에 학부모와 보호자들을 초청하여 여름 사역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며 함께 기도했다. 아동부(유·초·소)의 2023년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나는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1)'으로 '여름성경학교 미리보기'를 제작하여 아동부의 여름성경학교, 아동부 교사, 부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부 교사들은 사랑부 '릴레이 300기도' (10명씩 30일간 기도), 소년부는 '여사모' (여름성경학교를 사모하는 모임), 중등부는 '40일 릴레이 금식기도'와 '주일 12시 기도회'로, 고등부는 '123기도회' (릴레이 금식기도)와 '토요 4시

기도회' 등 교사 부흥회를 열고 모든 부서와 성도가 한마음으로 특별금요기도회를 열어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했다.

중등부와 고등부는 2019년 이후 4년여 만에 해외로 비전트립을 떠난다. 이에 앞서 'YDS제자훈련'을 진행한 중등부는 '이스라엘·요르단 비전트립'을 통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각자의 비전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고등부도 <제자훈련>을 거쳐 <몽골 비전트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발견하는 훈련을 하고 영락에서 시작하여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에 앞서 영락 성도들과 교육부 공동체는 50주년 기념관 1층에서 중등부는 <Rejoice Greater>, 고등부는 <HIGHBUCKS>라는 1일 카페로 축제의 장을 열어 '보내는 선교사'로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기도로 동역하기로 다짐했다.

취재 최윤미 기자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강화 성산청소년수련원)



## 뜨거웠던 하반기 맞이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다’



지난 6월 26일(월)부터 7월 1일(토)까지, ‘2023년 하반기를 맞이하여 특별새벽기도회’가 매일 아침 6시(토요일 6시 30분) 본당에서 열렸다. 이번 기도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다’라는 주제로 진행했으며, 많은 영락의 가족이 주님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2023년 하반기를 준비하고자 본당을 찾았다. 특별기도회는 김운

성 위임목사의 말씀과 함께 교구별로 정성을 담아 준비한 찬양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김운성 위임목사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가(누가복음 14:15~24)’, ‘실수한 사람(창세기 38:27~30)’, ‘무능한 사람(출애굽기 4:10~17)’, ‘결핍된 사람(사무엘상 17:31~40)’, ‘실족한 사람(요한복음

21:15~17)’, ‘악한 사람(고린도후서 12:1~10)’ 등의 주제로 2023년 상반기를 힘차게 달려온 영락의 성도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모두 하반기에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아 은혜의 떡을 먹는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취재 박진현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갈보리 50년, 올림과 그 기억들” 갈보리찬양대 기념집 배포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갈보리찬양대는 ‘갈보리 50년, 올림과 그 기억들’ 기념집을 제작하여 배포했다. 이 기념집은 “올림”과 “기억” 두 가지 버전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했다. “올림” 부분에는 갈보리찬양대가 지난 50년간 발표한 모든 찬양 CD(174곡)와 주옥같은 찬양 영상이 USB로 수록되어 있다. “기억” 부분에는 1973년 창립부터 2023년 현재까지 갈보리찬양대의 역사, 사진, 축하의 글 등이 담겨있다.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 갈보리찬양대는 지난 6월 25일 주일에는 순복음부천교회에서 초청 연주회를 열었다. 7월 30일 주일 찬양예배 시 50주년기념관 베다니홀에서 기념



음악회를, 8월 16일(수)부터 19일(토)까지는 창원 상남교회, 김해 장유대성교회, 부산 부전교회에서 선교 연주를 예정하고 있다.

취재 인미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남선교회, 서울노회남선교회 연합회와 헌신예배



지난 7월 16일 주일 찬양예배는 서울노회남선교회연합회와 영락교회 남선교회가 헌신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조병준 장로(제1남선교회 회장)의 인도와 연합회 부회장 정회균 장로(흥익교회)의 기도로 시작되었고, 정인기 집사(제3남선교회 회장)가 예레미야 35장 1~11절을 봉독했다. 이날 예배에서는 구의교회를 담임하는 류범호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전통과 습관, 기본입니

까? 목표입니까” 주제로, 네갑 사람들(네갑 족속)의 변하지 않는 전통과 습관을 이어오는 귀한 신앙 태도를 생각해보며, 우리도 대한민국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눈물과 땀방울로 내려온 가르침을 기반으로 순수한 신앙을 지켜 제2의 네갑 사

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연합회 여호수아중창단의 봉헌 찬양과 전태성 집사(제2남선교회 회장)의 봉헌 기도, 연합회 충무 원종식 장로(문화교회)의 사업 보고, 그리고 연합회 회장 오광욱 장로(중곡동교회)의 인사말로 예배를 마쳤다.

취재 안하윤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 영락사회복지재단, 헤브리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영락사회복지재단(이사장 박홍준 장로)은 헤브리재가노인복지센터(센터장 김영혜 권사)를 법인이 직접 운영하기 위한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와 서울중구청을 통해 행정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가 완료되면 8월부터 영락사회복지재단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다.

헤브리재가노인복지센터는 지금까지 성도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헌신적으로 사역해 왔으며, 영락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 동역자로 일반 요양기관과 차별화된 서비



스 제공 및 성도들의 영과 육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제공 영락사회복지재단

##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인상파 화가들은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빛을 표현하고자 하여 원색 물감을 재빨리 혼합하여 캔버스에 그린다. 순간을 집중하는 작가는 빛의 상태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가능한 한 재빨리 그리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인상파는 반짝이는 빛을 그릴 수가 없었다. 아무리 선명한 원색을 칠한다 해도 그림은 밝아지지 않았다. 물감은 빛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상파 미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과학적인 접근으로 인상주의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이 조르주 쇠라(George Seurat, 1859~1891)였다. 그가 2년 이상에 걸쳐 완성한 걸작인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는 점묘법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쇠라는 작가의 시선을 통해 아주 미세한 단위로 쪼개진 색들을 섬세하게 캔버스에 담아내는 점묘법을 통해 인상파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학적 인상파(신인상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는 더 나아가



추상미술의 가능성도 열어주었다. 하지만, 사회적 활동과 친구가 적었던 그는 오직 예술작품 제작에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여 많은 작품을 남기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랑자트섬’은 파리 서쪽에 있는 센강의 섬이다. 오늘날에도 파리 사람들은 센강 변에 나와서 주말을 즐기며 휴식을 취한다. 1880년대에 완성한 <그랑자트섬의 일요일 오후>는 작품 속 인물들이 그랑자트섬의 잔디밭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강에서 요트를 타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소란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며 내면의 평화와 조용한 순간을 찾는 안정과 평화를 상기하게 한다. **만남**

글 정재원 편집위원

### 2023년 8월호 통권 594호

발행 2023. 8. 1.

발행인 김운성 지도목사 강승훈 편집인 김태영 편집장 권오란

편집위원 박순복 김재원 이형일 박선이 정용성 김성문 김성수 김윤영 류정현 안동현 안하윤 이동훈 이혜순 정재원  
기자 김경옥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미 최윤미 사진기자 원종석 유승현 교열 계영희 이광미 유승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만남 e-book

[mannam.youngnak.net](http://mannam.youngnak.net)

만남 웹진

[www.youngnakmn.net](http://www.youngnakmn.net)





책(Book)을 읽고 감동을 적어 나누는

# 2023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 공모주제

###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 상(像)

1. 나는 어떤 리더인가? 나는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2. 환경직 목사의 신앙과 삶에서 나타난 리더십

## 응모기간

2023. 9. 1(금) ~ 9. 30(토)

## 응모대상

1.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소속 서울지역 회원교 중·고등학교생
2. 숭실대학교 재학생
3. 영락교회 중·고등학교생, 대학생, 청년, 장년

## 응모부문

### Ⅰ 환경직 따라살기 Ⅰ



#### 환경직 리더십 실천사례

A4 10매 내외, 글자폰트 12, 줄간격 160%

- ▶ 서론-본문-결론을 갖춘 자유형식
- ▶ 제시된 주제와 선정도서를 바탕으로
- ▶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체험했던 내용이나 느낌
- 조직의 갈등을 해결하고 화합을 이끌어낸 사례, 봉사를 통한 이웃에 대한 사랑, 자신의 변화 등

### Ⅱ 일반부문 Ⅱ



#### 독서감상문

A4 2~3매 내외, 글자폰트 12, 줄간격 160%



#### 회화, 웹툰

JPG 파일 (수상자는 원본 제출)



#### UCC, 메타버스

분량 : 3분 이내, 500MB 이하, 해상도(1280X720)  
파일형식 : AVI, MPEG, WMV



#### 자유형식

제시된 주제와 선정도서를 참고하여 자유형식으로 표현

## 선정도서

### Ⅰ 환경직 따라살기 Ⅰ

환경직 목사 리더(십)관련 설교, 논문 및 자료

### Ⅱ 일반부문 Ⅱ

#### 중·고등부

1. 「리더를 꿈꾸는 청소년에게」 존 맥스웰, 애플북스, 2019
  2. 「괜찮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니까」 백수연, 보랏빛소, 2018
- ※ 중·고등부 응모자는 선정도서 신청 시 무료 배부(반드시 응모부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공통 (중·고등부 / 대학부 / 청년부 / 장년부)

「다윗대통령의 귀환 : 리더를 리드하는 리더」 최하진, 나무와 가지, 2021

#### 일반부

1. 「리더십 불변의 법칙」 존 맥스웰, 비즈니스북스, 2023
2. 「영적 지도력」 오스왈드 샌더스, 요단, 2018
3. 「미래형 리더가 온다」 백성훈, 꿈미, 2022

## 수상자 발표 11월 5일(주일)

## 시상식 11월 12일(주일) 찬양예배, 영락교회 본당

## 시상내역

환경직 따라살기	구분	중·고등부	일반부
	대상	아이패드 1명	아이패드 1명
환경직 따라살기	최우수상	문화상품권 50만원 2명	문화상품권 100만원 1명
	우수상	문화상품권 30만원 4명	문화상품권 50만원 2명
	장려상	문화상품권 15만원 4명	문화상품권 30만원 2명
	참가상	문화상품권 5천원	-
일반 부문	구분	중·고등부	일반부
	대상	아이패드 1명	아이패드 1명
일반 부문	최우수상	문화상품권 15만원 13명	문화상품권 30만원 2명
	우수상	문화상품권 10만원 20명	문화상품권 20만원 3명
	장려상	문화상품권 5만원 26명	문화상품권 10만원 4명
	참가상	문화상품권 5천원	-

## 수상작 전시 11월 12일(주일) ~ 11월 25일(토)

## 응모방법

전자우편(clibmi@naver.com) 또는 도서관에 직접 제출  
접수 시, 파일명은 '성명\_제목'으로 제출, 작품 표지에 소속·성명·연락처 기재  
문의 : 02-2280-0293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

## A Sunday Afternoon on the Island of la Grande Jatte

▶ 작품 내용은 56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조르주 쇠라(Georges Seurat), 1884~1886

캔버스 유화(Oil on Canvas)

미국 시카고 미술관 소장